

국어사와 방언

이태영(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인사 말씀)

이런 기회를 주신 국어사학회에 감사드립니다.

정년을 한 입장에서, 현재 각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들께 특강을 한다는 것이 무척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평소 관심이 있던 국어사와 방언 분야, 특히 국어사와 방언의 상관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만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개괄적인 이야기라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로 국어사와 방언을 상관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기를 희망합니다.

I. 방언의 다양성

방언(지역어)에서 어휘 형태소나 문법 형태소는 이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규칙이 매우 다양하다는 걸 보여준다. 따라서 방언 규칙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성은 전체 한국어를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해 한국어라는 인식을 바르게 한다면 표준어를 산정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¹⁾

예를 들면, 중세국어의 동사 ‘붙다(羨)’에 형용사파생접미사가 붙은 ‘부럽다’가 표준어로 쓰인다. 전라방언에서는 ‘붙다’에 형용사파생접미사 ‘-업’이 연결되어 ‘불겁다’가 쓰인다. 접촉지역에서는 ‘붙다’가 쓰인다. 경상방언에서는 ‘붙다’에 형용사파생접미사 ‘-업’이 연결되어 ‘불법다’가 쓰이고 있다.

방언은 기본적으로 한국어에서 분화되기 때문에 중세국어 ‘밍글다’에서 유래하는 ‘맹글다’가 현재에도 왕성하게 쓰이고 있고, 중세국어는 ‘구을다’이지만 방언에서 ‘궁글다’가 쓰이므로, ‘궁글다>궁을다>구을다>글다’와 같이 중세 이전의 어휘로 재구가 가능하다.

방언은 살아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공시적으로 변화를 보이는 예가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전라 방언 중에서 ‘겁나게, 솔찬히’ 등 현재에도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존재한다. 이러한 어휘들은 그 변천과정이 매우 규칙적이다.

따라서 방언을 고려하지 않고, 중세국어를 기본형으로 삼아 언어변화를 제시하는 획일화된 연구태도를 경계한다. 근거 없이 어원을 추상화하여 하나로만 제시하려는 태도를 경계한다.

1) 방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해야 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전체 한국어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바람직할 것이다.

국어사 연구자들도 자기 분야의 확장을 위한다면 방언 자료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오늘은 몇 가지 예를 가지고 검색하는 과정과 그 상관성을 소개하려고 한다.

1. 방언 자료의 검색

현대국어 ‘부럽다’의 방언형을 가지고 논의해 보기로 한다. 간단히 방언 자료의 검색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에서 발간된 『한국방언자료집 5(전북 편)』, 『한국방언자료집 6(전남 편)』을 검색한다.
- 2) 『한국방언자료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참고하여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충북, 충남 편을 ‘통합’하여 그 쓰임을 살핀다.
- 3) 『지역어조사보고서』(국립국어원)를 살필 필요가 있다.
- 4)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를 검색하여 전라도는 물론 ‘전국적인 분포’와 지역적 특징과 분포를 살핀다.
- 5) ‘한국방언검색프로그램’(국립국어원,2007)을 검색, 정렬하여 방언형의 체계를 잡는다.
- 6) ‘어휘역사검색프로그램’(국립국어원,2007)을 검색하여 문헌의 국어 변천 과정을 살핀다.
- 7) 지역의 문학작품을 검색하여 1900년대 초중반까지의 시대적인 빈칸을 메꾼다.(예를 들어 채만식 작품으로 전북 방언의 3,40년대를 자세히 살필 수 있다.)
- 8) 이런 검색 과정에서, 음운론적 이형태, 형태적 이형태, 통사적 이형태, 어간재구조화, 혼태형, 화용표지 등이 다양하게 발견되어 언어 규칙을 산정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준다.²⁾

방언 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한국방언자료집』, 『지역어 조사』, 『한국방언검색프로그램』, 『문학방언검색프로그램』과 같은 자료, 개인들이 만든 방언사전을 제외하면 대부분 개인들이 구축한 자료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통합 검색을 위해서는 개인이 만든 자료와 용역사업에서 구축한 자료들이 ‘통합된 방언 말뭉치’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학작품’에 나타난 방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³⁾

2. 전북 정읍 방언 ‘뽏다, 불겅다’(부럽다)

전북 방언에서는 ‘부럽다’의 방언형으로 ‘뽏다, 불겅다’가 쓰이고, 경상 방언과 접촉 지역에서는 ‘뽏다, 불법다’가 쓰이고 있다.

- 1) 현대국어 ‘부럽다’는 『한국방언자료집 5(전북 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보면 전북 정읍 지역에서 ‘불겅다’로 나타난다. 전북과 전남편에 나오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특히 한국구비문학대계와 문학작품에서는 구어체의 대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문어체에서 볼 수 없는 어간재구조화, 혼태, 화용표지 등을 살필 수 있다.

3) 방언 연구자들은 그간 구축된 방언 자료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럽다/형/

*부럽다 <전북>[익산, 김제, 부안, 임실, 장수] *북다 <전북>[진안] *불겁다 <전북>[옥구, 완주, 진안, 부안, 정읍, 장수, 고창, 순창] *불법다 <전북>[남원] *뵈다 <전북>[무주]

#부럽다/형/ *부럽다 <전남>[영광, 담양, 함평, 신안, 무안, 화순, 광양, 진도, 해남, 장흥, 완도] *불겁다 <전남>[장성, 곡성, 구례, 광산, 나주, 화순, 영암, 강진] *불법다 <전남>[승주, 광양, 장흥, 보성, 고흥] *불거빈다 <전남>[곡성] *불거잡다 <전남>[화순] *좋아뵈다 <전남>[영암] *불거뵈다 <전남>[강진] *뵈다 <전남>[여천] *부러워도 <전남>[영광, 신안, 무안, 화순, 광양, 해남, 완도] *불거와도 <전남>[장성, 광산] *부러와도 <전남>[담양, 장흥] *불거워도 <전남>[곡성, 나주] *부러아도 <전남>[함평] *부러뵈:도 <전남>[함평] *불버와도 <전남>[승주, 장흥, 고흥] *좋:아뵈:도 <전남>[영암] *부러:도 <전남>[진도] *불거뵈:도 <전남>[영암] *불거뵈:도 <전남>[강진] *불버:도 <전남>[광양, 보성, 여천] *부러워지다 <전남>[영광, 신안, 화순, 진도, 해남, 완도] *불거와지다 <전남>[장성] *불거워지다 <전남>[곡성, 나주] *부러와지다 <전남>[광양, 장흥] *불버지다 <전남>[광양, 장흥, 보성, 여천] *불버와지다 <전남>[고흥]

2) 『한국구비문학대계』를 살펴보면, 전북과 전남에서 ‘뵈다’(부럽다)가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이고 {불거}(부러워) 뵈요. <5-5전북정주시*정읍군편,72p>

이놈을 갖다 놓고 본게 부자가 부자도 안 {불거}. <5-5전북정주시*정읍군편,454p>

넘들은 아버지도 불러쌍구, 아버지도 있으니께 {불거}뵈고 (부럽고), 그러는데, <5-2,전북전주시*완주군편,627>

[판소리조로] 후유 한숨 길게 쉬고 팔을 비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가 요만허며는 넉넉허지 어떤 사람 {불걸소냐}(부럽지 않다) 우리 옹기장사 {불걸소냐}(부럽지) 열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5-4전북군산시*옥구군편,983p>

그 왜정 때 그 사각모자 씌 사람들 있어, 대학생들. 요것이 {불거든}, 부럽거든. 불거. 그래서 뜨그 집이 와가지고는 나무를 밤으로 극고 <6-4,전남승주군편,24p>

하도 {불거서}(부러워서) 나가 대학생 모자 씨고 옷 입은 것이 죄지 한개도 죄가 없네. <6-4,전남승주군편,29p>

3) ‘뵈다’(부럽다)와 ‘불겁다’(부럽다)가 쓰인 지역을 『한국방언자료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또는 『한국방언검색프로그램』에서 찾아, 정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로 전라 방언에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적인 확인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 *북다 {정문연} <전북>[진안]
- *불거(베도) {정문연} <전북>[정읍]
- *불거(뵈아도) {정문연} <전북>[옥구, 완주, 진안]
- *불거(뵈다) {정문연} <전북>[옥구, 완주, 진안]
- *불거(비도) {정문연} <전북>[장수, 순창]
- *불거(빈다) {정문연} <전북>[정읍, 장수, 고창, 순창]
- *불거:도 {정문연} <전북>[고창]

- *불거두 {정문연} <충북>[청원]
- *불거밴다 {정문연} <전남>[강진]
- *불거뵈:도 {정문연} <전남>[강진]
- *불거뵈도 {정문연} <전남>[영암]
- *불거빈다 {정문연} <전남>[곡성]
- *불거와도 {정문연} <전남>[장성, 광산]
- *불거와지다 {정문연} <전남>[장성]
- *불거워도 {정문연} <전남>[곡성, 나주]
- *불거워지다 {정문연} <전남>[곡성, 나주]
- *불거접다 {정문연} <전남>[화순]
- *불겁다 {정문연} <전남>[장성, 곡성, 구례, 광산, 나주, 화순, 영암, 강진]
- *불겁다 {정문연} <전북>[옥구, 완주, 진안, 부안, 정읍, 장수, 고창, 순창]
- *불겁다구 {정문연} <충남>[보령, 서천]

4) 『한국방언자료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충북, 충남 편을 통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전국적인 언어 현상을 파악하여 다양한 지역의 규칙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부럽다’는 ‘어간 ‘불-’ + 접미사 ‘-업’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사용된다.

(2) ‘불다’(부럽다)는 ‘불버도’와 같이 사용되며, 경상 방언을 중심으로 사용된다. 동사로는 ‘불버하다’가 쓰인다.

(3) ‘불법다’(부럽다)는 ‘불버워도’와 같이 사용되며, ‘어간 ‘불-’ + 접미사 ‘-업’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경상도와 인접하는 지역에서 주로 사용된다.

(4) ‘불다’(부럽다)는 ‘불거도’와 같이 사용되며, 충청 방언과 전라 방언을 중심으로 사용된다.

(5) ‘불겁다’(부럽다)는 ‘불거워도’와 같이 사용되며, ‘어간 ‘불-’ + 접미사 ‘-업’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주로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 사용된다..

5) 역사적으로 16세기와 17세기 문헌 자료에서는 동사로 ‘불다(羨)’가 쓰이고 있다. ‘부럽다’는 형용사이지만 이의 동사형은 원래 ‘불다’였다. ‘불다’가 원순모음화된 것이 ‘불다’인데 이의 어간 ‘불-’에 접미사 ‘-업’이 붙어 형용사 ‘부럽다’가 된 것이다.(어휘역사검색프로그램 참조)

중세국어의 ‘불다’의 어원이 무엇인지, 방언형 함께 고려하면 그 어원을 찾는 작업이 매우 용이할 것이다.

- 떠·러·더 나·그내 ㅅ외요미 오·라니 늘·거셔 그딴·의 도라·가물 {브노라} <1481두시초23,48a>
- 羨 불을 선 <1576신유합, 下, 026b>
- 平公은 이젿 글·히기에 爲頭니 秀發호문 내의 {브논} 배라 <1613두시중16,54a>
- 블늘 선 羨 <1664유합_원, 026a>
- 羨 불을 선 <1700유합영, 026a>
- 불다 羨 <1880한불자, 347>

불어허다 羨 <1895국한회,154>
불어허다 羨 (부러울 선) <1897한영자>

그러나 형용사 ‘불다’와 ‘부럽다’는 18세기부터 나타난다. 형용사 ‘부럽다’는 동사 ‘불-’에 형용사파생접미사인 ‘-업’이 연결되어 형용사가 된 것이다.

부러울 선 羨 <17xx왜유해,하,035b>
부러워허다 羨 불어허다 羨 <1880한불자,343>
부럽다 羨 <1880한불자,343>
불워허다 羨 <1880한불자,344>
부러워허다 羨 (부러울 선) <1897한영자>
羨 부러허다 <18xx광재물,形氣,008a>
白鷗야 부럽고나 네야 무음 일 잇시리.<18XX가곡원>
오리 쌍쌍 원앙새야 너의 연분 부럽도다.<18XX권익중실기,197>
불워울 선(羨) <1918초학요,063>

한편 ‘불다’는 “불디 불다”(〈낙일칠〉 123), “늬 불디 아니허디”(〈한중록〉 372)처럼 ‘불디’ 형으로 ‘부럽다’의 뜻을 강조하는데 활용되기도 하고, ‘아니하다’와 같은 형태와 호응하기도 한다.

십륙 세에 그 아비 광릉(廣陵)과 소금 푸는 곳의셔 죽으니 그 싱니(生意)를 니어 7음알미 지물이 날노 모다 두어 히 스이에 넷날 석송(石崇)을 {불디 불다}<17XX낙일칠,123>
비록 궁흔 몸이나 목전 유복은 늬 {불디} 아니허디<18XX한중록,372>
예문 어썬 男學生과 어썬 女學生이 서로 戀愛를 주고 받고 한다는 이악이를 들을적마다 空然히 가슴이 뛰놀며 {부럽기도} 하고 悲感스럽기도 하였섯다.<1921빈처,171>
쇠돌엄마의 호강을 너머나 {부럽게} 우르러 보는 반동으로 자기도 잘만 했드면 하는 턱업는 희망과 후회가 전보다 몇 갑절 쓰린 맛으로 그의 가슴을 찌버뜨뎠다.<1934소낙비,28>

6) 결론적으로, 방언의 분포와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동사 ‘불다’에 형용사파생접미사가 붙은 ‘부럽다’가 표준어로 쓰이고, 동시에 전라방언에서는 ‘불다’가 기본형으로 주로 사용되었고, 경상방언에서는 ‘불다’가 기본형으로 사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 형용사파생접미사 ‘-업’이 연결되어 ‘부럽다, 불겁다, 불법다’가 쓰인 것이다.

II. 국어사 기술에서 방언 구어 자료의 역할

국어사 연구에서는 문헌자료만을 다루는 고정관념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방언이나 현대국어 자료에도 국어사 자료가 수없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대를 구분하여 국어사 자료를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국어사 문헌 자료에 나오지 않는 어휘, 형태소 등이 무수히 많을 터인데 이러한 빈칸을 어디에서 메울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 그러한 빈틈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방언 자료와 현대국어 자료를 잘 활용하는 일이다.

니(경남), 벌거지(경남), 벌거이(경남), 벌경이(경남), 벌쟁이(경남, 전라), 벌기이(경남), 벌강이(경남), 벌레이(경남), 벨거이(경남), 벨게이(경남), 버리(경북), 벌개(경북), 벌랭이(경북), 벌리(경북), 버레(경상, 전남, 충청), 벌쟁(경상), 벌쟁이(경상), 벌게이(경상), 버가지(전남), 벌각재기(전남), 벌걱대기(전남), 벌게미(전남), 보라지(전남), 불가지(전남), 불기(전남), 빌가지(전남), 버럭지(전라, 충남, 황해), 버레기(전북), 버레이(제주), 버랭이(제주), 버랭이(제주), 버링이(제주), 벌렛낭(제주), 베레이(제주), 베랭이(제주), 벌라지(충남), 벌레지(충남), 벌걱지(평안, 중국 요령성), 벌걱지(함남, 황해), 벌디(함북), 불디(함북), 벌러케(황해), 벌럭지(황해), 벌럭치(황해) <우리말샘>

‘벌레’의 중세국어형은 ‘벌에’이다. 그러나 방언을 보면 ‘벌거지’류가 아주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벌에’의 15세기 이전 형태는 ‘*벌게’로 추정할 수 있다. 15세기의 ‘물애[沙], 말위[葡], 굵애[剪], 갓위[蚯蚓]’ 등은 ‘*물개’, ‘*말구’, ‘*굵개’, ‘*갓귀’로부터 변화한 것들이다.

1. 중세국어 ‘냄새(臭)’와 방언의 ‘내금, 내금새’

1) 문헌에 나타나는 ‘내음, 내음새’의 변천 과정을 연도별로 표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이태영, 2012) 국어사 문헌에서 나오는 이형태만으로는 ‘내음, 내음새’를 더 이상 논의하기 어렵다.

‘냄새(臭)’를 나타내는 ‘내/니’는 복합어에서 주로 쓰이게 된다. ‘니(煙)’는 변화 과정에서 ‘내(臭)’와 서로 간섭을 보이고 있다. 문헌에서는 ‘냄새’의 이형태로 17세기에 ‘내음’류가 나오고 이어서 ‘내음새’류가 나오다가 ‘냄시’류로 정착된다.

이처럼 문헌에 나타나는 언어 사실만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냄새’의 구성이 ‘내음/내암/내음/내음 + 새/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문헌명
내음	1617년				동신삼강행실
니음			18??년		명дю보월빙
니암			1856년		字類註釋
내암			1884년		正蒙類語
내음새		17??년			漢淸文鑑
내암시		1790년			增修無冤錄
내암새			1880년		한불즈던
내음시			1897년		주교요지
내음새			1864년		성교절요
내음시			1864년		성교절요
내음시			1894년		訓兒眞言
내음새				19??년	동백꽃
내음새				1922년	젊은이의시절
니암시			1839년		斥邪繪音

늪음식			18??년		김진옥전
늪음식			18??년		삼설기
넙시			1896년		독립신문
넙시			1886년		잡상집요
넙스			1886년		잡상집요
넙새			18??년		신숙주부인전

2) 그러나 방언 자료를 살펴보면 ‘내금’과 ‘내금새’가 나오는데, 이를 통하여 ‘내음’의 어원을 ‘내금’으로 볼 수 있다. ‘내금’은 ‘*내금’으로 재구되는데 ‘*내금>내음’의 변천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방언의 ‘내구다’를 ‘*내ㄱ-’로 재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금’은 ‘*내ㄱ- + 명사파생접미사 ‘음/ㅁ’의 구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이태영, 2012)

국어사 연구에서 ‘내음’ 또는 ‘넙새’의 어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언 자료에서 우리가 살펴야 하는 형태소는 상당히 많다. 그 어휘들은 다음과 같다.

(1) ‘내다’와 ‘넙다’

『조선말대사전』에서는 ‘내다’는 자동사로 ‘내굴다’와 함께 등재하고 있고, ‘넙다’는 형용사로 ‘내구럽다’와 등재하고 있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내다, 넙다’를 해설하고 있지만, 방언형인 ‘내굴다’나 ‘내구럽다’는 표제항에 올리지 않고 있다.

- ㄱ. 내다01 「동」 (자) 내가 불길이나 아궁이안으로 들지 않고 되돌아나오다 || 불이 ~. 집이~. 아궁이가~. | 불이 내지 않고 잘 들인다. (=) 내굴다. 내기는 과부집 굴뚝 마른나무가 없이 생나무를 때는 과부집의 굴뚝처럼 연기가 몹시 낸다는 뜻으로 “부엌아궁에서 연기가 몹시 낼 때”를 비켜 이르는 말. (=) 넙기는 과부집 굴뚝이라. 아궁이 내고 연기가 땅으로 가면 비가 온다.
- ㄴ. 내굴다(내구니, 내구오) 「동」 (자) = 내다01.
- ㄷ. 내구럽다(내구러우니, 내구러워) 「형」 내가 눈이나 목구멍을 자극하여 습막히게 맵고 싸하다. (=) 넙다01.
- ㄹ. 넙다02 (내우니, 내워서) 「형」 =내구럽다. |젖은 나무로 불을 사르자니 연기만 자꾸 나고 내워서 견딜수가 없었다. 넙기는 과부집 굴뚝이라 = 내기는 과부집 굴뚝.

(2) ‘내굴다’와 ‘내구럽다’

국어에서는 자동사로 ‘내다’와 ‘내굴다’가 공존한다. ‘내다’는 주로 문헌에서 쓰이고, ‘내굴다’는 방언에서 사용된다. ‘내다’는 ‘니(煙)+ -다’의 구성을 가지며, ‘내굴다’는 ‘내굴(煙)+ -다’의 구성으로 동사화한 것이다.

- ㄱ. 내굴다 <동>(화룡, 연길, 훈춘, 계동, 할빈, 태래, 돈화) = 내다 <조선어방언사전>
- ㄴ. 내구다 <동>(계동, 화룡, 함경) = 내다 <조선어방언사전>
- ㄷ. 내다-내구럽다, 내굴다, 내다 <함북방언사전>
- ㄹ. 넙다-내구다, 내구럽다, 내굴다 <함북방언사전>

『한국방언검색프로그램』에서 ‘내굴다’와 ‘내구랍다’의 방언 어휘의 유형을 추출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ㄱ. *내굴다 <경남> <경북> <충남> <충북> <평북> <함남> <함북> <중국>[태래] <중국>[할빈] <중국>[돈화] <중국>[계동] <중국>[연길] <중국>[회룡봉] <중국>[훈춘]
- ㄴ. *내거랍다/내거럽다 <경남> <경북> *내구랍다 <강원> <경북> <함남> <중국>[오상] *내구럽다 <경남> <경북> <평북> <함북> *내구롭다 <강원> <함남> *내구롭다 <강원> <경상> *내그랍다 <경기> <경남>[양산, 창녕] <경북> <함남> <함북> *내그러버서 <경북> *내그러워서 <경북> *내그럽다 <경기> <경남> <경북> <함남> <함북> <중국>[오상] *내그롭다 <강원>

(3) ‘내구다’와 ‘내굽다/내웁다’

『한국방언검색프로그램』에서 ‘내구다’와 ‘내굽다’, ‘넙다’의 유형을 추출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ㄱ. *내굽다 <강원> <경기> <경북> <전남> <충남> <충북> <황해> *내굽따 <충북>[괴산, 단양, 청원, 보은, 옥천] *내굽다 <충북> *내넙다 <강원> <경기> *내구버서/내구와서/내구아서/내구워서 <경북> *내구와 <충북> *내구우니 <강원> <충북> *내구웁다 <충북> *내구워 <충북> <강원>
- ㄴ. *내구다 <충남> <함경> <중국>[계동, 밀강, 삼합, 월청, 회룡봉, 화룡시 용문향] *내귀 <충북> *내귀서 <충북>
- ㄷ. *내웁다 <전북> *내와 <전남> *내웁다 <강원> <경기> <경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황해> *내워 <충남> *내워서 <충북> <전남> *내웁다 <전남>[영광, 담양, 곡성, 광주, 무안, 신안, 나주, 해남]
- ㄹ. *넙다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함북> <황해> *내바서 <경남> *내버서 <경남> *넙다 <전남>[장흥]

3) 방언에 나타나는 ‘내금’과 문헌에 나타나는 ‘내음’을 종합하면 ‘*내금>내음’의 변화를 제시할 수 있다.

‘냄새’의 의미를 갖는 방언형 ‘내금’을 ‘*내금’으로 본다면, 그것은 방언의 용언인 ‘내구다’의 재구형 ‘*내ㄱ-’에 명사파생접미사가 연결되어 ‘*내금’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내금’이 생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냄새’의 문헌형인 ‘내음/내웁’도 역시 ‘*내ㄱ-’에서 ‘ㄱ’이 탈락한 ‘내ㅇ-’와 관련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내굽다’는 방언에서 ‘내웁다/내웁다’로도 실현되는데 ‘내음’도 ‘*내ㄱ-’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금>내음’의 변천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예에서처럼 국어사의 문헌어를 연구할 때, 방언의 역사가 크게 도움을 준다.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한국구비문학대계와 방언사전, 어휘자료집 등에서 전국적인 분포를 검색해야 한다. 다양한 언어규칙을 얻기 위해서는 표준어와 문헌어에 경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Ⅲ. 국어사와 방언의 종합적 기술

많은 국어사 자료가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다. 아직도 이미 나와 있는 국어사통합말뭉치에만 의존한다면 새로운 논문을 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자료란 국어사 문헌만이 아니다.

국어사 연구를 하거나, 방언 연구를 하거나 역사적인 측면을 살피려고 할 때는 반드시 국어사 문헌과 방언 자료를 통합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자빠지다’의 예를 들기로 한다.

1. ‘자빠지다’의 어휘사

전북 방언에서 사용하는 ‘자빠지다’의 어원과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중세국어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자빠지다’는 중세국어에서부터 ‘젓바디다>젓바지다>*젓바지다>젓바지다>자빠지다’로 변화하였다.

1) ‘젓바디다’와 ‘젓바 누이다’

중세국어 문헌에서는 ‘젓바디다’가 처음 나온다. 이 어휘를 보면 ‘젓바디다’가 한 단어처럼 보인다.

沛는 {젓바딜씨오} <1461능엄경언해5:32a>

그러나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다른 용례를 보면, ‘젓바 누이다, 젓바 누이다, 젓바 눅다’가 쓰이고 있어 ‘젓바디다’가 ‘젓브- + -아 + 디다’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

말슴 못흐거든 회향 고졸 구스게 니기 붓가 삼경 후에 평상 우희 {젓바 누이고} 믹슴 조초 머기라 <1489구급간이방언해1:16a>

사름미 오좁 더위면 사름을 {젓바누이고} 더운 훔으로 비 우희 노하 우기고 사름으로 오좁 누어 빗복 가운데 덥게 흐면 즉재 도흐리라 <1489구급간이방언해1:32b>

유뵈 밥 머근 후에 모로미 무근 젓즐 다 빠 업시호고 그제야 약 먹고 즉제 잠시만 {젓바누엇다가} 그제야 유좁을 아기 썰이라 <1608언해두창집요下:41b>

역산은 날온 발이 몬져 나미니 산모를 {젓바누이고} 쵸고매도 힘쁘며 놀라디 말게 호고 <1608언해태산집요.23b>

미인의 몸과 옥썤 접근흐믈 7장 깃거 7마니 {젓바 누어} 비논 말슴이, <17xx완월회맹연권 176.23b>

유창돈(1964)에서는 ‘젓바누이다’의 뜻을 ‘반듯이 눅히다’로 해설하고 있다. 박재연·이현희(2016)의 『고어대사전』에서는 ‘젓바누다’(仰臥)와 ‘젓바누우다’(仰上)는 ‘자빠져 눅다’로 해석하고 ‘젓바누오다’(仰臥)는 ‘반드시 누이다’로 해석하며, ‘젓바누이다, 젓바누이다’(臥, 仰臥)는 ‘눅히다’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젓바 누다, 젓바 누이다’를 띄어 쓴다고 보면, ‘젓바디다’는 ‘젓바 + 디다’의 구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2) '젯바 눕다'와 '히즈 눕다'

다음 『救急簡易方諺解』에 나오는 '젯바 눕다'와 '히즈 눕다'가 대비되고 있는 예문을 통하여 '젯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아래 예문에서 '히즈 눕다'는 '(한쪽으로) 기대어 눕다'로, '젯바 눕다'는 '반드시 눕다'로 해석할 수 있다. 『고어대사전』을 참고하면 '히즈눕다'를 복합어로 처리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側臥'로 되어 있고 '젯바 눕다'는 '仰臥'로 되어 있다.

올흔 녀기 알푼거든 올흔 녀으로 {히즈 눕고} 윈 녀기 알푼거든 윈 녀으로 {히즈 눕고} 두 녀기 다 알푼거든 {젯바 누으라} (右痛右側臥 左痛左側臥 兩邊皆疼仰臥) <1489구급간이방언해 2:7a>

『이조어사전』에서 '히즈'와 관련된 어휘로는 '히즈리다, 히즐이다'가 나오는데 '드러눕다'로 해설하고 있다. 『우리말샘』에서도 '히즈리다'의 예를 발견할 수 있는데 '드러눕다'로 해석하고 있다. 『杜詩諺解』에서 '히즈리다'는 원문에 '偃'(언)으로 표기된다. '偃은 누울씨라 <1461능엄경언해4:111a>'에서처럼 그 뜻은 '눕다'의 뜻을 갖는다. 그러나 18세기 『완월회맹언』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팔을 받치며 눕는 걸 표현하고 있어서 '히즈리다'는 '기대어 눕다'의 의미를 갖는다.

'히즈리다'의 활용으로는 '히즈려'가 주로 쓰이고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중세국어에서는 '히즈'로 활용되는데, 이는 '히즐다'가 기본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히즈리다 : 「동사」 「옛말」 「001」 '드러눕다'의 옛말.

나뭇가지에 흘러 프른 여르믈 혜옥 프른 몫기 가 {히즈려서} 쉬요리라.(條流數翠實, 偃息歸碧澗) <두시-초 15:4>

브람 분다 지게 다다라 밤 들거다 블 아사라 벼개에 {히즈려} 슬기 지 쉬여 보자. <교시조 1117-고유>

자며 설 처소를 밉기라 시시에 나아가 쉬여 {히즐이고} 도로 와 훈가지로 말하며 웃더라 <1588소학언해(도산서원본)6:69b>

벼개의 {히즈려} 줍을 드더니 <1765을병연행록3,46>

팔을 받치며 몸을 {히즈려} 잠드러더니 <17xx완월회맹언권70,16b>

중세국어의 '젯바 눕다, 젯바 눕다'의 구성에서 '젯바'의 어원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젯바'는 '젯바다'가 기본형일 것이다. '젯브 + -아'의 활용에서 '젯바'로 표기되었을 것이다.

둘째로, 기본형을 '젯다'로 보고 '-브-'는 파생접미사로 처리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물론 품사의 차이는 있지만, '깃기다'가 '깃브다'로 변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18세기 문헌에 '젯바져 눕다'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젯바지다'는 이미 이 시기에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젯바져 눕다'는 '엎더눕다'와 대조되는 말로 쓰이고 있어서 그 의미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젯바 눕다 : 벌령 눕다. 벌거케 올올이 {젯바누어} <朴重中1 > <이조어사전 참조>

仰臥 {젯바져눕다} <1748동문유해上:27a> 仰臥 {젯바더 눕다} <1778방언유석申,20a> 仰白

臥 {젓바더 눕다} <1690역어유해上:40a>

俯臥 {엎더눕다} <1748동문유해上:27a>

초금이 근심하고 민망하여 {젓바져 누어} 창을 향하니 히 그림자 창에 쏘이엇거늘 히를 향하여 보니 그 글쭙 <1758종덕신편언해下:61b>

往後倒 젓바디다 <1690역어유해上:40a>

仰倒 젓바디다 <1790몽어유해上:20a>

젓바지다(仰面跌倒) <漢 118a>

3) ‘자빠지다’의 조동사화

‘자빠지다’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다양한 방언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학작품을 이용하여 시대별 방언의 쓰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넘어지다’와 ‘자빠지다’는 그 의미가 다르다. ‘자빠지다’는 ‘옆으로 넘어지다’는 뜻을 갖는다.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자빠져 자라.’의 예에서와 같이 동사를 비하하는 표현에 쓰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자빠지다’가 그냥 ‘넘어지다’의 의미를 벗어나,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보조용언으로 쓰이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놀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매렵는 소리하고 자빠졌네’와 같이 조동사 구성에서 쓰이고 있다. ‘자빠지다’는 어른한테는 잘 쓰이지 않고 주로 아이나 제3자에게만 쓴다.

‘자빠지다’를 오랜 세월 써오면서 지역민들의 정서가 반영되어 비하하는 뜻을 가진 동사로도, 이어서 비하하는 표현에서 보조동사로도 쓰이게 된 것이다.

자빠-지다 「007」 「보조 동사」 (동사의 ‘-고’ 활용형 다음에 쓰여) ‘있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구신 찢나락 까먹는 소리 허들 말고 빨리 자빠져 자라>(*넘어져 자라)

저 사람 놀고 자빠졌네.(있네, 앉았네, *넘어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있네, 앉았네, *넘어졌네), 매렵는 소리하고 자빠졌네.(있네, 앉았네, *넘어졌네)

20세기 초의 자료를 보면 ‘말라 자빠지다, 놀라 자빠지다, 죽어 자빠지다’ 등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는 이미 ‘자빠지다’가 보조동사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1930년대의 자료에는 ‘놀고 자빠지다’와 같이 조동사나 ‘자빠져 자다’와 같이 비유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 이런 유형이 일반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자빠져 자다’는 ‘누어서 자라’는 뜻이 아니다. 한쪽에서 조용히 하고 자라는 뜻이다. 비속어적인 표현으로 이미 관용적인 표현으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세국어에서도 주로 의학서에 나타나서 아픈 사람의 경우에 주로 쓰이고 있다. 다음의 예에서도 ‘병든 사람이 자빠져 눕다’의 예가 나오는데 이런 예에서 ‘자빠지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病歟 사르미 {젓바디여} 누워 활시우를 베오 <1466구급방,상.61b>

실제로 신소설에서는 ‘말나 잣바지다, 놀라 잣바지다, 죽어 잣바지다’가 나오는데 이는 ‘잣바지다’가 원래의 뜻을 벗어나 부정적인 표현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동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가만히 잡바지다’의 경우에도 ‘가만히 있다’의 부정 표현이다.

(김) 쓸쓸 옛기 밋친 년 그 짜위 년다려 마마 마마가 다 무엇 {말나 잣바진} 것이냐 그 년이 라고 흐지 <1911치약산,하:39>

리협판이 급히 그 편지를 바다 반쯤 나리 보다가 업헤 슝이 {놀나 잣바지게} 소리를 지르며 통곡이 나온다 <1912현미경,82>

(갑) 그 씨 쇼인 등이 청심환을 사 가지고 분나케 나가 보온 즉 쏘쇠어미는 잔디밭헤 가 {죽어 잣바졌습는데} 여호와 다른 산 금싱들이 반이나 넘게 쓰더 먹엇습고 <1912현미경,237>

칼을 다시 집어들고 {죽어 잡바진} 송장을 후려치고 돌쳐 나가니 그 날은 사월 열이레 날이라 누루수롭한 달은 서천에 <1908귀의성(하),120>

「도」 응^ 무엇이야^ 몸조심을 하고 되야 가는 것을 보아 쇠불알 썩러지지만 바라고 {가만히 잡바졌스면} 일이 다 잘 될가^ 네가 만일 이러케 가만히 잇스면 세상에서 너를 사름으로 <1912재봉춘,192>

이처럼 국어사 연구를 위해서는 방언의 검토가 꼭 필요하고, 방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어사와의 관련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IV. 마무리

국어사와 방언을 연계하여 연구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다양하게 보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1. 국어사 자료(말뭉치)의 확대

대체로 국어사 문헌 자료는 근대국어 후기 자료인 개화기 시대까지로 한정하는 듯하다. 실제로 개화기 시대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아직 자료 발굴과 입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세종계획에서 만든 ‘국어사 통합 말뭉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20세기 초 자료가 많이 빠져 있다.⁵⁾ 이미 연구를 거쳐 말뭉치가 구축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자료를 수집해서 보완해야 한다.

국어사 연구가 현대국어까지 이어지려면 신소설 이후의 자료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학 자료가 많아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떤 어휘의 전국적인 분포, 시기별 쓰임 등을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2. 방언 말뭉치의 활용

방언은 한국어 안에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국어사와 방언은 아주 밀접히 관련되어

5) 20세기 초 자료 목록은 홍윤표 교수가 작성한 ‘국어사 한글문헌자료 목록’을 참고할 수 있다.

있다. 이제 갈수록 말뭉치가 확보되면 통합 검색하는 태도가 날로 늘어갈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

방언 말뭉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국어사 문헌에서 ‘방언사’라고 다루는 문헌이 있다.
- 해당 지역의 방언 조사 자료가 있다.
- 한국구비문학대계와 같이 지역의 설화를 중심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다.
- ‘한국민요대전’과 같이 지역의 민요를 중심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다.
- 고전문학에서 ‘완판본 한글고전소설’, ‘필사본 한글고전소설’, 판소리 등에 방언이 많이 나타난다.
- ‘완판본 천자문’ 가운데 방언이 많이 나타난다.
- ‘한글 고문서’ 및 지역사를 다룬 각종 필사 자료에 방언이 많이 나타난다.
-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한민족언어정보화 검색 프로그램(우리말샘)’, ‘한국방언자료집’, ‘지역어조사보고서’ 등에 방언이 많이 나타난다.

3. 한문 원문의 활용

이미 앞에서 ‘자빠지다’의 중세국어 예문을 검토할 때, 한문 원문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필자의 기존 논문 ‘**‘興’자의 번역과 관련된 문법화 연구**’에서는 한문 원문의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였다.

현재 우리 국어사 연구자들이 수많은 한글고전소설 자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문 원문의 복원 작업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전문학, 한문학 연구자와 공동연구가 필수적이다.

국어사 연구에서는 박재연·이현희(2016)의 ‘**고어대사전**’에서 한문 원문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사전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4. 연구 자료의 다양화

국어사 연구 따로, 방언 연구 따로, 현대국어 연구 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 상관성을 찾아가는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많은 말뭉치가 구축되었고, 또 구축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어사와 방언 연구자들은 어휘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기울여 그 변천과정을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살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연구는 물론이고, 국어사전의 뜻풀이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함께 해 주신 여러분의 발전하는 연구 성과를 기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

이태영(2011), 전라북도 방언 연구, 역락.

이태영(2012), 국어사와 방언사 연구, 역락.
 이상규·신승용(2010), 문학 속의 경상 방언, 글누림.
 곽충구·박진혁(2010), 문학 속의 북한 방언, 글누림.
 이태영(2010), 문학 속의 전라 방언, 글누림.
 강영봉·김동윤·김순자(2010), 문학 속의 제주 방언, 글누림.
 박경래(2010), 문학 속의 충청 방언, 글누림.
 국립국어원(2007), 한민족언어정보화 프로그램.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 『한국구비문학대계 5-5』(정주시·정읍군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 『한국구비문학대계 5-6』(정주시·정읍군편2).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 『한국구비문학대계 5-7』(정주시·정읍군편3).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 『한국방언자료집 5』(전라북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방언자료집 6』(전라남도편).
 MBC방송(1995), 『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전라북도청(2021), 『전라북도 방언사전』, 신아출판사.
 박재연·이현희 주편(2016), 『고어대사전』,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